

인원으로 보는 광이한 두 현실

국민의 행복, 기쁨이 넘치는 나라

립성은 전공부에서 막힘이 없는 경쟁한 실력자들이... 단 순히 단란한 가정생활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아니다...

힘으로 세계를 앞서나가려는 열의에 넘쳐 과학기술보급에서 열심히 배우는 창의인력의 명수들도 있고 일하면서 배우는 사회주의교육제도의 혜택으로 원격교육대학에 입학하여 지식을 넓혀가는 근로자들도 있다...

내려가시는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하기에 공화국을 방문하였던 한 해외동포는 《실업이라는 말조차 모르고 근심없이 일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다름 아닌 공화국이다...》고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정년퇴직의 미행

남조선에서 절대다수 근로대중이 노동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하였다. 지금 남조선에서 언제 해고될지 모를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1 000만명에 육박하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에서 여성들은 만능적인 실업의 가장 큰 희생자로 되고있다...

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다. 《업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인간대우를 받지 못하고...》

구자로 되는것이 바로 남조선 노동자들의 비참한 처지이다. 지난해에만도 800여명에 달하고 작업환경이 불리한 것으로 하여 불구가 되고 공병이 들어 신음하는 노동자들은 수천을 헤아린다고 한다...



남조선에서 절대다수 근로대중이 노동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당국의 반인민적인 정책으로 말미암아 오늘 남조선에서는 실업사태가 더욱 심각해지고있다.



전화의 날에 세워진 전재민구호대책

지난 1950년 6월 25일 공화국에 대한 침략전쟁을 일으킨 미국은 국제법을 란복하게 위반하면서 평화적인 도시와 마을 지어는 병원과 학교까지 무차별적으로 폭격하여 재파탄을 만들었다...

전재민들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가해주시기 위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제39 (1950)년 11월 17일 내각부수상 홍명희선생을 전화로 찾아가서 전재민들을 구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정식되고 추켜세우기 위한 국가적인 사업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시었다. 그리하여 전재민들과 해방지구 인민들은 광복과 주력, 연료 등을 국가로부터 보장받게 되었으며 식당, 상점들을 비롯한 상업 및 금융망 전국 도모해주기 위한 사업들이 조직되었다.

서 로해장악하고 그들의 생활안착을 위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해방지구 인민들은 광복과 주력, 연료 등을 국가로부터 보장받게 되었으며 식당, 상점들을 비롯한 상업 및 금융망 전국 도모해주기 위한 사업들이 조직되었다.

며칠전 취재차로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을 찾았을 때였다. 새 기준, 새 기록들과로 새차에 뛰어넘는 건설장의 활기찬 숨결을 온몸으로 체감하며 걸음을 옮기는 나의 눈앞에 한 돌격대원이 쓰내려가는 속도의 급격한 제목이 류다르게 안겨왔다.

들과 건설자들의 보석같은 마음들을 다 전하자면 속보의 가문이 모자랍니다. 가슴이 몽글 몽글했다. 수풀처럼 밀려서있는 건축물들 하나하나가 무심히 안겨오는 피해는 나의 눈앞에 한 돌격대원이 쓰내려가는 속도의 급격한 제목이 류다르게 안겨왔다.

누가 보지 않는 수천척지 하막장에서 성실한 땀과 노력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량부들, 비록 얼굴이며 손은 석탄가루로 얼룩져있지만 나라의 석탄산을 쌓아간다는 희열과 긍지로 그들의 얼굴은 언저나 밝다.

조금씩 전성시기 그처럼 심각하게 제기되었던 전재민문제는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인민사랑과 공화국정부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해결되게 되었다.

《보석》 생각이 잠겨있느니라 언젠인 속보의 제목이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사연을 묻는 나에게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다.

가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감동히 되새겨졌다. 애국은 보석과 같고, 보석은 땅속에 묻혀있어도 빛을 잃지 않는 것처럼 애국의 마음은 그것이 비록 언저 아도 귀중한것이며 언제나 아름다우니라고 하시던 그날의 금언이.

《애국은 보석과 같다.》 조국을 억척같이 떠받들고 있는 보석같은 마음의 주인 공들을 보시마베 만나고싶은 충동으로 나는 걸음을 재우쳤다.

《(우리 학교인데 얼마나 무관심하냐?) 알기는커녕 관심조차도 못 가진 자기들이 부끄럽기도 하여 더 잘해보자고 조동무들은 준비에 달려보았습니다.》

세계교육발전추세에 맞게 교수방법을 혁신해간다

조성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결정을 받들고 공화국의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핵심적,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방성 있는 인재들을 더 많이 육성하기 위하여 교수방법개선에 큰 힘을 쏟고있다.

세계일류수준으로 전환하게 교육공간을 현대화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모든 사업을 교육수준을 한계단 올려세우는데로 지향시켜나가고있다.

을 새롭게 진행하고있다. 무엇보다 기초교육단계에서부터 외국과학기술선진사와 편 집물들을 마음먹은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외국어교육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있을뿐 아니라 강의의 외국어로 진행하고있다.

이곳 최립호실장의 말에 의하면 학생들이 현장기사를 통해 진행한 기초교육현장에서 찾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공과목을 선택하고 연구사업도 진행할수 있다고 한다.



또한 모든 학생들이 리론과 실천이 겸비된 인재로 준비될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현장에 접목시키고 실험과 실습, 현장체험 등 교육과정안을 합리적으로 작성하여 집행하고있다.

본사기자 림광훈